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대표들이 지난 16일 열린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가맹업계 간담회'에서 손을 맞잡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김상조發 프랜차이즈 상생바람

쏟아지는 상생안, 관건은 '실행'

김상조-프랜차이즈협회 간담회
전기료 지원·영업위약금 폐지 등
공정위 압박에 본사 상생안 마련
자발적실행과 정부 모니터링 필요

프랜차이즈 업계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발(發) 상생 바람이 불고 있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들이 가맹점부와 상생 방안을 쏟아내고 있어서다. 이는 지난 16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가맹업계' 간담회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일각에선 이를 두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김상조 효과'가 적극 반영된 것이 아니냐는 평가가 짙다

◆상생에 불붙인 '김상조 효과'

이번 가맹본부들의 상생협력방안 마련의 이면에는 '김상조 효과'가 숨어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부터 가맹본부에게 자발적인 상생방안 마련을 요청해왔다. 급기야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필수품목을 통한 가맹금 수취 여부 ▲필수품목별 공급가격 상·하한 ▲가맹점 사업자별 평균 가맹금 지급 규모 등의 정보를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만들어 가맹본부들을 압박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가맹점을 이익창출의 대상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을 부

가가치를 함께 창출하는 동반자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김상조 효과는 상생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성과를 내고 있다. 공정위가 지난 1월 발표한 가맹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점포환경개선 실시건수는 1653건으로 전년(1446건)에 비해 14.3% 증가했다. 반면 점포 환경개선을 강요당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의 비율이 0.4%로 전년(0.5%)에 비해 0.1% 감소했다. 영업지역 침해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도 15.5%로, 전년 27.5%에 비해 12% 줄어 들었다.

한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지속해서 가맹본부와의 만남, 프랜차이즈 행사장에서 가맹본부의 자발적 상생 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해온 것이 상생방안의 불을 지폈다"고 털어놨다.

◆상생안 미봉책 대신 안돼

GS25, 롯데리아 등 19개의 가맹본부 상생협력 방안의 핵심은 최저수입 보장, 구입강제품목 축소, 가맹점주 영업권 보호 등이다.

편의점업계는 최저수입보장 확대 운영, 전기료 지원 등을 상생 방안으로 내놨다. GS25도 운영기간 1~2년 미만 점포 대상인 최소 수입보장액을 연 6000만 원에서 9000만 원으로 확대했다. 또 기존에 지원하던 전기료 50%에 추가로 최대 50만 원을 지원한다. 이마트24는 가맹점주와 본사와 상의해 진행하던 영업시간 차

을제를 유지하고 가맹점의 계약 해지 때 부과하는 '영업위약금'을 없애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커피·외식업 가맹본부도 구입강제품목의 범위 축소와 로열티 인하 등 경영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디야커피는 구입강제품목 수를 259개에서 117개로 55% 감축하고 일회용컵·냅킨 등 12개 품목의 가격을 최대 40% 인하하기로 했다. 탐앤탐스는 커피원두 등 3개 주요 품목의 가격을 평균 6% 인하한다. 빵다방은 현행 연 300만 원인 로열티를 10% 인하한 270만 원으로 낮춘다고 밝혔다.

또 본죽은 죽포장 용기 가격을 18% 인하고 원가가 최대 25% 상승한 반찬 등 3개 품목의 가격을 동결하고 가맹점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무기한 보장한다. 푸레쥬르는 가맹점의 영업권 보호를 위해 기존 가맹점에서 500m 내에 신규 가맹점 출점을 제한한다.

이러한 상생협력의 실행은 가맹본부의 실행의지와 정부차원의 모니터링이 관건이다. 길 프랜차이즈연구원의 서홍진 가맹거래사는 "정부 차원의 압박을 받았기에 소통채널도 없던 본사와 점주 간의 대화의 분위기가 조성된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상생방안 마련이 기업들이 단순히 홍보효과에 그치지 않도록 가맹본부의 자발적인 실행과 공정위의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진·글=유재희 기자 ryusoul91@metroseoul.co.kr

실버사회, 블랙푸드가 뜬다

검은콩·보리 등 건강식 부상

식품업계, 다양한 제품군으로
시니어는 물론 전 연령층 공략

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블랙푸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1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의 13.8%로 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넘는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

블랙푸드는 검은콩, 검은깨, 김, 해조류, 카카오닙스 등 검은색을 띤 원료로 만든 식품을 이르는 것으로 항산화 작용을 하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노화 예방 효과가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다.

이에 식품업계는 시니어 노화 방지는 물론 전 연령층이 즐길 수 있는 블랙푸드로 만든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정식품은 블랙푸드 대표주자 검은콩으로 만든 '베지밀 5060 시니어 두유'와 '베지밀 검은콩과 검은참깨 두유'를 선보였다. 정식품 '베지밀 5060 시니어 두유'는 몸에 좋은 국산 검은콩이 함유된 고칼슘 두유로 한국 시니어층에게 부족하다고 알려진 비타민 D가 풍부하게 함유된 제품이다. 노화 방지에 필수적인 항산화 성분 아연과 셀레늄도 일일 권장량의 30% 수준으로 들어있다. 콩 속에 부족할 수 있는 단백질 메티오닌을 보강해 시니어에게 필수적인 단백질의 효율을 강화했으며 설탕 대신 천연히 소화·흡수되는 결정과당 이소말토올리고당을 사용해 부담 없이 마실 수 있도록 했다. 하이트진로음료는 일반 보리보다

항산화 효능이 뛰어난 검정 보리 음료 '블랙보리'를 출시했다. '블랙보리'는 일반 보리에 비해 항산화 물질인 안토시아닌이 4배, 식이섬유가 1.5배 이상 함유된 검정보리를 사용해 만든 제품이다. 이노 작용이 없는 보리차 특성상 체내 수분 보충과 갈증 해소에 뛰어나다. '블랙보리'에 사용된 검정보리는 지난 2011년부터 농촌진흥청이 개발하고 산업화를 추진한 보리 신품종으로, '블랙보리'는 볶은 검정보리를 단일 추출하는 공법을 통해 잡미와 쓴맛을 최소화하고 보리의 고고진한 맛을 강조했다.

일동후디스는 '후디스 카카오닙스 차'를 선보였다. 이 제품은 카카오닙스를 두 번 로스팅한 후 우려내 카카오가 갖는 고유의 풍미는 높고 몸에 좋은 폴리페놀을 최대한 살렸다. 또한 L-카르니틴을 넣은 0kcal 음료로 칼로리 걱정 없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카카오닙스를 즐길 수 있다. 초콜릿과 달리 설탕이나 첨가물이 함유돼 있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건강식품으로 카카오 본연의 영양소와 폴리페놀 성분들을 섭취할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이다.

CJ제일제당은 미네랄과 철분이 풍부하게 함유된 김으로 만든 스낵 '비비고 김스낵' 2종을 출시했다. CJ제일제당 '비비고 김스낵 허니앤콘'과 '비비고 김스낵 핫스파이스'는 김에 쌀 칩(Rice Chip)을 접합하는 기술을 적용해 튀기지 않고 오븐에 굽는 방식으로 만든 웰빙 간식으로 글루텐,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성분이 없고 인공색소나 향미증진제를 첨가하지 않은 제품이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



"고함량 활성비타민으로 피로회복, 하루 한알로 끝"

Advertorial Corner

중근당 '벤포벨'

최근 고함량 활성비타민이 육체피로 해소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지며 소비자들에게 각광받고 있다. 관련 시장은 매년 30% 이상 폭발적으로 성장하며 다양한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비타민 제품을 고를 때 자신에게 필요한 성분인지, 함량이 충분한지, 활성형 비타민이 맞는지 등을 충분히 살펴보고 선택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중근당의 '벤포벨'은 활성비타민인 벤포티아민을 포함한 비타민 B군 9종과 우르소데옥시콜산(UDCA), 코엔자임Q10, 비타민C, D, E, 아연 등을 복합적으로 함유해 하루 한알로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성분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는 고함량 기능성 활성비타민 제품이다.

벤포벨의 주성분인 벤포티아민은 육체피로와 눈의 피로, 신경통, 근육통 개선에 효과적인 활성형 비타민B1성분이다. 일반비타민 B1 제제보다 생체이용률



이 높고 복용 시 약효가 빠르게 발현되며 오래 지속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 제품은 벤포티아민 외에도 비타민 B2, B6, B12를 각각 100mg분량으로 함유하고 있고 피로회복과, 구내염, 피부염 등에 효과가 있다.

또한 간기능 개선에 효과적인 UDCA 성분 30mg과 항산화 기능, 노화 예방에 도움을 주는 코엔자임Q10, 혈중 콜레스테롤 감소에 효과적인 이노시톨, 면역기능에 필수적인 아연, 비타민C, D, E 등 현대인들의 건강 관리에 필요한 성분이 최적의 용량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제품은 1일 1회 복용으로 하루에 필요한 권장량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으며, 정제의 크기를 줄여 목넘김에 불편함을 느끼는 소비자의 복용 편의성을 개선했다.

중근당 관계자는 "최근 과도한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생활패턴, 잘못된 식습관 등으로 만성피로와 면역력 및 체력 저하를 호소하는 현대인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하루 한 알로 간편하게 복용 가능한 벤포벨이 현대인의 피로회복과 건강관리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인용 기자

LG화학 바이오의약품 '유셉트' 국내판매 허가

류마티스에 효과... 시장 본격 공략

LG화학이 국내 항체 바이오의약품 시장을 본격 공략한다.

LG화학은 지난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자가면역질환 치료 성분 '에타너셉트(etanercept)' 기반 바이오시밀러 제품인 '유셉트(Eucept, 국내 제품명)'의 판매허가를 획득했다고 18일 밝혔다.

유셉트는 LG화학의 첫 항체 바이오의약품으로 류마티스 관절염, 건선성 관절염, 축성 척추관절염, 건선 등의 적응증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았다.

제품 구성은 ▲25mg syringe/0.5ml ▲50mg syringe/1.0ml ▲50mg autoinjector/1.0ml 등 총 3개 규격이다.

LG화학은 차별화된 경쟁력을 바탕으로 외산 브랜드가 장악 중인 약 300억원 규모의 국내 에타너셉트 성분 시장을 본격 공략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LG화학은 한국인 대상 대규모 임상시험 통한 신뢰성 확보와 자가

주사(환자 스스로 주사) 사용자 환경을 고려한 주사 편의성 향상이 유셉트의 경쟁력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LG화학은 2014년부터 국내 약 30개 종합병원에서 185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임상 3상을 진행했다. 한국 환자 대상의 대규모 임상으로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유효성 및 안전성 데이터를 확보, 빠르게 국내 시장에 침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LG화학은 주사 편의성 향상에도 초점을 맞췄다. 환자가 직접 자가주사 하는 제품 특성상 손이 불편한 류마티스관절염 환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투여할 수 있도록 오토인젝터(autoinjector) 타입으로 주사기를 디자인 했다.

또한 오리지널 의약품보다 더욱 가는 주사바늘을 적용하여 주사 시 통증 감소 효과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LG화학은 지난 1월 '에타너셉트' 기반 바이오시밀러 제품 최초로 일본 판매 허가를 획득한 바 있다. /박인용 기자